

西歐 産業社會 學生運動의 特性和 原因

金 東 一

(梨花女大 社會學科)

I. 머리말

한국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아와 빈곤에서 해방되기 위한 작업으로 脫農業化를 시도하면서 産業化過程에 들어선 후 불과 20여 년만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의 기록을 성취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변천의 와중에서 경제발전에 부수하는 많은 사회문제의 발생을 우리는 목격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시급히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는 젊은 세대의 반항,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青年運動의 심화 내지 과격화라 하겠다.

물론 青年運動 또는 學生運動은 그것이 사회불안의 원인이자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의 指標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학생운동과 사회불안은 20세기의 현대사회에서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¹⁾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적 불안과 학생운동이 相互強化의 力學關係, 즉 악순환의 관계를 지닌 채 20여 년간 지속해 오고 있으며, 학생의 저항

운동이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든 결과이든 이제 이 두 要因간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안정과 화평을 성취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은 최근에 와서 특히 고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1960년 4·19 학생의거를 기점으로 오늘날까지 주기와 진폭에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 지속되어 온 학생운동은 우리나라 특유의 것만은 아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한 학생운동은 그 규모나 사회적 중요성에 있어서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현상이었다.²⁾ 1950년대의 학생저항운동이 공산국가나 다른 후진국들의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³⁾ 그런가 하면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구미 선진공업국가에서도 대대적인 학생저항운동과 소요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예는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등지에서 학원소요를 들 수 있고, 특히 1964~5년 사이에 발발한 버클리대학의 학생소요를 기점으로 미국 전역에 확대된 青年運動은 그 후 근 10년이나 지속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터지기 시작한 공산주의 위성국가나 비공산권 후진국의 학생운

1) S.M. Lipset, *Rebellion in the Univers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2) Lipset, Op. Cit.

3) G.S. Jones, "The Meaning of the Student Revolt," in A. Cockburn and R. Blackburn (ed.), *Student Power: Problems, Diagnosis and Action*, Baltimore, Md.: Penguin Books, 1969, pp. 25~26.

동은 '60년대의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학생운동과 공통된 요소도 보이고 상이점도 보인다. 세계 각국의 학생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성은 말할 것 없이 이 운동의 主體인 靑年, 즉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들 특유의 속성에 기인한다. 인생의 週期에서 靑年期에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특성은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특성을 넘어서는 유사점을 보인다. 예컨대 청년들에게서 나타나는 理想主義에 대한 견해는 古代 그리스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언급된 것이나 근대의 사회사상가 막스 베버나 칼 맑스 또는 엥겔스에 의해 기술된 것이나 현대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지적한 점에 있어서나 별로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理想主義적이고 未來指向的인 사회심리적 특성을 토대로 한 靑年文化, 특히 學生文化는 역사소통의 기구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한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파급된다.

그러나 학생저항운동의 성격을 이 같은 청년기의 공통된 사회심리적 특성에서만 찾는다는 것은 이 운동에 대해 너무나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고찰로 끝나게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人間行爲라 할지라도—그것이 개인행위이든 집단행동이든—것을 시대적, 사회적 환경과 분리해서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역사성이나 사회적 특성을 어느 정도 초월하는 공통성을 먼저 찾아내고, 이것이 특정된 시대나 사회적 환경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청년들에게 공통된 사회심리적인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지면의 제약상 생략하고 시대적 배경과 사회구조적 특성이 학생운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는 선·후진국가를 망라한 세계 각국의 학생운동을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고, 필자가 비교적 익숙한 1960~70년대 미국에서의 학생운동을 분석·고찰함으로써 우리 사회문제

해결의 他山之石으로 삼고자 한다.

II. 1960년대 美國 學生運動의 發端過程과 特性

1. 學生運動의 發端과 過程

1960년대 미국에서 발발한 학생저항운동의 전형적인 事例는 버클리대학교의 학원소요에서 찾을 수 있다.⁴⁾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에서 1964년 가을에 터진 학생들의 데모와 소요는 美國의 大學史上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것이었으며, 9월에 시작된 이 학원소요는 이듬해 정월까지 대학의 기능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학교 앞에 있는 26피트 길이의 공터에서 학생들이 모여 정치활동을 한다든가 성토회를 하는 것을 대학 당국이 금지한 데서 시작한다. 학교 당국이 이 공터가 학교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곳을 사용하려면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자 학생들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보이게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言論自由運動(the Free Speech Movement)', 즉 FSM을 조직화했으며 나아가서 자신들의 교내 활동에 제약을 주는 校則의 改正과 學校體制 自體의 一大改革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FSM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냉담스런 반응을 보였고, 그 결과 학생들은 연일 데모와 성토회, 그리고 침묵시위를 계속했으며 규모가 큰 경우에는 7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요구사항의 관철을 촉구했다. 버클리 학원소요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교내 유리창이 여지 없이 파괴되고 화염물 폭발과 방화가 여기저기서 일어났으며, 이 뜨거운 가을학기 동안 수 백명의 경찰들이 두 번이나 학교에 진입해서 과격학생들을 체포했는가 하면 급기야는 800명의 학생들이 대학본부로 완전히 점거하게 되었고 이에 맞먹는 경찰병력이 투입되어야 했었다.

버클리의 학생운동은 그 후 수년간 간헐적으로 지속되었으며 이것이 미국 전역에 걸친 대학

4) S.M. Lipset and S.S. Wolin, "Introduction," in S.M. Lipset and S.S. Wolin (eds.), *The Berkeley Student Revolt: Facts and Interpretations*, Garden City, N.Y.: Anchor Books, 1965, pp. xi~xiv.

가에 끼친 파급효과는 지대한 것이었다. 즉 버클리 학생운동은 1968년의 콜럼비아대학의 대규모 학원소요와 연결되며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학가들, 예컨대 이태리, 영국, 서독, 프랑스의 학생저항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미국내의 경우만 해도 1970년에 들어서서 하버드와 위스칸신대학을 비롯해서 미시간 대학교, 사우드 캐롤라이나대학교, 텍시코대학, 존 홉킨스대학 및 MIT에서 학생소요는 지속되었다. 오하이오주의 켄트주립대학교의 학생폭동,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과 산타 바바라의 캘리포니아대학의 소요는 은행이 불타고 학생들이射殺되는 비극을 낳기도 했다.

2. 學生運動의 特性

1960~70년대의 미국을 위시한 서구 산업사회에서 발발한 학생운동은 아시아나 南美의 개발도상국가나 東歐의 공산주의국가의 학생운동과는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여 준다. 예컨대 버클리의 경우, 첫째로 그곳의 학생저항은 대학교육을 받은 지성인을 잘 대우해 주고 보다 많은 政治的 自由가 보장된 사회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적어도 초기의 버클리 학생운동은 開途國의 학생들이 군사정권에 도전하거나 공산위성국가에서 독재정권에 항거해서 민주주의체제와 자유를 갈구하는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학생들은 헌법이나 미국의 정치체제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행정에 반발하고 보다 폭 넓은 학생자치와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셋째로 버클리 학생운동은 전략적인 면에서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버클리의 학생들은 풍요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대학 당국이 학생운동에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들의 반항과 시위를 극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학교 당국과 주정부는 對話와 說得을 통해서보다는 힘과 權威로 학생

들을 억압하려 했다는 인상과 약점은 노출시키도록 했던 것이다.

끝으로 버클리를 위시한 미국 대학생 운동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것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버클리에서 시작된 학생운동에서 집요하게 추구된 이데올로기는 이른바 參與民主主義(participatory democracy)라는 것이었다.⁵⁾ 즉 학생들의 권익과 복지에 관련되는 校內의 거의 모든 主要意思決定過程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대학교육의 교과과목의 설정이나 그것의 내용에 관한 결정뿐만 아니라 학교 예산의 항목 결정, 교수의 임용 등 전통적으로 학생의 참여가 배제된 거의 모든 주요 행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교수, 학생, 행정직원 모두가 공평하게 학교의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참여민주주의는 바로 中央集權的인 行政體制를 지양하고 權限의 分化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체제의 확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Ⅲ. 學生運動의 原因에 대한 社會學的 考察

1. 1960년대 學生運動의 時代的 背景과 社會 構造的 狀況

위에서 소개한 미국 학생들의 대대적인 사회참여와 정치활동은 '60년대의 국제적 여건, 미국 내부의 사회구조와 문화적 상황 및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는 새롭고 특수한 것이었다. 학생운동의 양상과 대학생들의 현실참여도는 물론 시대에 따라 다르다. 파쇼주의(Fascism)와 세계공황(the Depression)의 위협 속에서 1930년대에 서구 학생들이 대규모의 급진운동을 벌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2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195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은 서구의 학생들이 '침묵의 세대(the Silent Generation)'라고 불리울 만큼 현실참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⁶⁾

5) G.E. Swanson, "A Basis of Authority and Identity", in R. Robertson and B. Holzner (eds.), *Identity and Authority*, Oxford: Basil Blackwell, 1980, pp. 190~217.

6) Jones, Op. Cit.

. 그러던 것이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대학생들은 현실참여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이 같은 경향은 '60년대에 와서 서구사회를 휩쓴 폭발적인 저항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새로운 학생운동은 전대미문의 과격성을 보였고 새로운 革命主義의 戰略을 거침 없이 노출시키고 있었다. 예컨대 교수에 대한 공개재판을 벌인 이태리 학생운동이나 경찰과의 물리적 대치를 서슴치 않은 일본의 학생반항, 그리고 무기수집에 나선 베네주엘라 대학생들의 저항운동은 실로 과격한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의 화형식이나 미국 학생들의 연좌대회는 상당히 일반화된 저항 방법이였다.

'60년대의 대학생들이 이처럼 대대적이고 과격한 저항운동을 벌이게 된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의 기간이었고 세계대전이 끝난 후는 미·소 양국으로 한 이른바 冷戰의 時代였다. 미·소를 양국으로 한 共產主義와 資本主義의 對決은 한국의 6·25 전쟁을 계기로 절정에 달했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공동관심사 때문에 서구 산업국가의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은 국내의 정치체제나 사회적 상황을 비판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反共路線을 통해 知識人을 위시한 전국민이 대동단결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미·소 양국간에 핵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심도 작용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적 여건은 그 양상을 전과 달리했다. 우선 공산권 내부에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소련 공산주의의 독재와 횡포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예컨대 東歐 衛星國家들 사이에 공산당의 독재에 저항하는 세력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의 自律化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중·소간의 결렬은 공산독재체제에 단결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서구의 反共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동시에 '60년대에 들어와서 미·소간의 소위 '平和共存(peaceful coexistence)'이라는 새로운 분위기의 형성은 성급한 지식인

들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하게끔 했다. 이제 국제정치무대는 미·소간의 대결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식민통치 속에서 신음하다 빈곤과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소위 제3세계간의 갈등으로 장식되기 시작했다. 즉 미·소를 중심으로 한 가진 자들끼리의 대결이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이 국제정치무대에 초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 대한 알제리아의 독립전쟁, 영국에 대한 아덴(지금의 남 예멘공화국)의 독립투쟁, 큐바와 베트남의 미국에 대한 도전 등은 그 좋은 예이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때 푹푹 뭉겼던 정치인, 지식인, 학생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반항, 월남전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베트남에 B52 폭격기로 무차별 공격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약소국가에 대해 구사하는 폭력을 자신들의 요구관철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폭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논리에 미국 국민의 상당수는 동조하고 있었다. 특히 이즈음에 형성된 소위 新左派(the New Left) 학생운동은 人種主義를 비롯한 국내의 모든 社會的 不平等의 철폐와 政府의 막강한 힘에 의한 民衆에 대한 통치와 억압을 포기할 것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⁷⁾

'60년대에 이 같은 학생들의 급진주의운동이 전국에 급속도로 파급되게 한 미국 국내의 사회적 상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미 지적한 대로 월남전에 대한 학생들의 거부반응은 미국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었다.

둘째로 제도화된 인종차별을 과감히 철폐하려던 케네디 대통령을 위시해서 로버트 케네디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그리고 켈트주립 대학에서의 경찰에 의한 학생들의 피살 등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은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들이었다.

7) Lipset, Op. Cit.

세계로 인종문제에 관련된 학생들의 반항은 미국내의 흑인 인구의 이동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60년대에 들어서서 이미 몇몇의 대도시—워싱턴, 뉴욕, 개리 맥, 애틀란타市—는 흑인 인구의 급증으로 이들에 의해서 거의 점령당하다시피한 상황이었으며 이것은 미국 전체 사회의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비례로 들 수 있는 학생운동과 관련되는 사항으로는 종교적 상황의 변화였다. 전통적으로 美國社會는 白人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지배되어 온 사회였으나 카톨릭의 세력은 꾸준히 신장되어 '60년초에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카톨릭 신자인 케네디 대통령의 출현을 낳았다. 이즈음 즉 1962년 요한 13세 교황에 의해 열린 제 2의 바티칸 공회의 결과는 카톨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참여를 장려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 전체에 世俗化의 물결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다.

다섯째로 들 수 있는 미국 사회의 변화는 과학 기술과 산업의 발달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피임약의 발달은 미국 국민 특히 青年世代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었다. 인간세계에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친 기술혁신도 드물었다. 또 하나의 과학 기술의 발달과 연관되는 문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자각과 불안이었다. 기계문명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과 이에 따르는 환경의 오염과 피해는 청년들의 경각심과 반항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60년대의 미국 학생운동과 관련되는 國內外的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분위기에 관해 논술했다. 이제 아래에서는 학생운동의 보다 일반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이것과 관련되는 학원내부의 구조적 특성이 학생운동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를 살펴 보도록 한다.

2. 學生運動의 社會學的, 人口學的 要因과 美國 大學의 構造的 特性

역사적으로 볼 때 학생운동이 기존 정치구조

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인텔리겐차 집단의 출현과 그 계를 같이 한다. 그러면 근대사회의 형성과 함께 빈번하게 발생했던 학생운동의 사회학적 원인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앞에서 1960년대의 미국의 학생운동과 관련되는 國內外的 與件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여건들은 '60년대 그 당시 학생운동 발발의 원인을 설명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은 모두 뭉쳐서 사회적 불안의 指標로 볼 수 있으며 社會的 狀況이 不安하면 이것에 대해 青年들은 一般知識人들과 함께 즉각적이고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구조의 불안정성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현실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사회학적 가설은 급격한 속도의 社會變遷과 이것에 따르는 世代差(generation gap)의 확대가 청년들의 반항을 초래한다는 것이다.⁸⁾ 급격한 사회변천과 가치관의 변화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간격을 深化시키고 이 같은 세대차는 기성세대의 젊은 세대에 대한 沒理解와 젊은 세대의 기성세대에 대한 不滿과 反抗으로 表出된다. 세대차로 인해 價値觀과 世界觀에 乖離이 생기고 혼란이 야기될 때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의 사회체제로부터의 疎外를 경험하게 되고 이 경우 청년들은 집합행동을 통해 기존체제와 질서에 도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의 원인에 관한 또 하나의 유력한 이론은 인구변동에 초점을 맞추는 일종의 역사적 고찰에서 유도된다. 예컨대 허버트 몰러(Herbert Moller)에 의하면 16세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革命的인 變化가 온 경우는 이 시대의 青年層人口가 그 前時代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때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서 18세기 유럽의 혁명기는 청년 인구가 크게 증가한 때임을 들 수 있으며, 1770년대와 1780년대 프랑스에서는 30세 미만의 청년인구가 그 후의 어느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었음도 들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1920년대 말기에 청년 인구가 대

8) K. Davis, "The Sociology of Parent-Youth Confli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 August, 1940.

폭 늘기 시작해서 1933년의 격동기에는 그 비율이 극히 높았다는 것이다. 1960년대의 미국의 학생운동에 관해서도 몰러의 조사에 의하면 1940년대와 '50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출산력에 의해 '60년대의 청년인구 비율은 그 전 시대에 비해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⁹⁾

물론 위에서 지적한 학생운동에 대한 두 가지 원인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급격한 사회변천이 기존질서와 규범을 不確實한 狀況에 빠뜨리고 여기에다 靑年의 수가 상대적으로 급증했을 때 기존체제의 균형이 깨어지고 이에 따라 매사에 예민한 靑少年들이 급진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학생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은 대학 내부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로 '60년대에 급증한 靑少年人口의 비율은 대학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한정된 시설에 수용능력을 능가하는 학생수의 비폭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은 대학의 분위기를 보다 조직화하고 관료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 당국의 권위주의와 교수들의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은 학생들의 불만을 축적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둘째로 대학교육 내용 자체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교수들의 역할과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대학의 기능이 그것의 전통적인 교육 목표였던 知性人, 激發人을 창출한다는 범위를 넘어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기능적 전문인을 대량으로 양성하는 데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학의 기능과 목표의 변화는 전공의 다양화, 행정의 중앙집권화, 끊임없는 시험을 통한 교수의 학생에 대한 학문적 요구의 기대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과 공동체의식의 상실 등은 학생들의 불만과 불신감을 조장하는 데 충분한 사회적 조건이었다.

세째로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교수해 온 政治的 中立性과 學

問의 自由를 부르짖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학원 밖의 정치에 점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케네디 대통령 시절부터 상당히 일반화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대학과 교수가 정치에 관여하는 만큼 대학생들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교수와 학생간의 一體感(identity)에 급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교수와 학생간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원인은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즉 대학 교수들 자신들에게도 사상 유례 없는 학문적 압박감이 주어졌고 그들 사이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져 갔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수의 학생에 대한 무관심의 도를 점점 심화시켰다.

끝으로 들 수 있는 학생운동의 원인으로서의 위에서 지적한 대학의 기능과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추구하는 傳統的인 價値, 즉 진리의 탐구라든지 왜곡된 현실에 대한 비판과 보다 새롭고 나은 일을 추구한다는 理想主義와 未來指向的인 성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進歩主義的인 교수들의 지지를 받을 때 더욱 강하게 학생운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IV. 맺는 말

'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친 학생운동이 서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충격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교수를 포함한 기성세대에게 自己省察의 기회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불러일으켰다. 말할 것 없이 학생측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合法的인 參與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자신들의 운동의 과격성과 그것이 사회구조의 변화에 미칠 수 있는 한계점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黑白의 論理를 벗어나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의 추구에 되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의 급진운동에 대한 社會의 反應도 뚜렷했고, 그 결과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9) H. Moller, "Youth as a Force in the Modern World,"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0, April, 1968.

과격성을 경계하는 保守主義의 불결을 일으키기도 했다.

예컨대 1968년 5월에서 6월에 걸친 프랑스에서의 대대적인 학생소요는 그 후 프랑스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최초의 보수주의 정당에게 정권을 넘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정치무대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사항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966년 로널드 레이건이 州知事로 당선된 것은 버클리 학생소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고, 1968년 시카고에서 民主黨 大會가 열렸을 때의 청년들의 과격한 행동은 닉슨의 대통령 당선에 크게 유리한 작용을 한 것이다. 비슷한 현상은 독일, 핀란드, 일본 등지에서도 나타났는데, 1969년 12월 일본의 선거 때 학생들을 지지한 社會黨이 크게 패배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을 위시한 서구 산업사회에서의 학생운동이 우리들에게 주는 敎訓은 여러 가지임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지면의 제약상 일일이 여기서 再論 않겠으나 본론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최근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변천에서 오는 世代差의 확대, 靑年人口의 급증, 학원 내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은 1960년대 미국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단지 위의 사례에서 꼭 얻어야 할 하나의 교훈을 지적하라면 청년운동의 해결은 억압적이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과격성에 대해 인내를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기로 한다. *